

# ‘더불어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10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 어느 분야든 10년의 시간을 지속해 이어 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올해로 10년째 장애 예술인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이끌어온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다르기’가 주인공. 구체적으로 ‘나눔과 친교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문화운동’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다르기문화예술교류협회이며, 위원장은 정한울 작가가 맡고 있다.

지난 2014년 창립 때 올해로 만 10주년을 맞는 다르기가 ‘2023 다르기-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을 조선타 미술관(24일까지)에서 열고 있다. 130명의 작가가 모두 13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상호 문화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한울 작가는 “이번 10주년은 과거의 시간을 토대로 내일의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며 “지나온 시간을 매듭짓고 그것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향후에는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모티브로 한 전시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애 예술인 60명을 비롯해 비장애 예술인 70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도 다양하다. 한국미술협회광주광역시지부를 비롯해 광주구상작가회, 광주미술작가회, 광주가톨릭작가회 뿐 아니라 대구구상작가회, 울산구상작가회, 부산구상작가회 등 타 지역 단체에서도 참여했다.

올해 공동추진위원장인 조영대 신부는 “다르기! 그들이 외적으로 금이 가 보이지만 그 상처와 아픔으로 오히려 순수와 포용, 상련(相戀)의 흐름

## 국제다르기문화예술교류협회

10주년 전시 24일까지 조선타 미술관

장애·비장애 예술인 130명 참여

소통 촉진·상호문화교류 장 확대

을 일으키는 사랑의 향아리”라며 “다르기가 문화 예술을 통한 사랑의 동행운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의 향아리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울 작가가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활동, 문화



김미란 작 '봄소식'

향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친구 때문이었다. 오래 전 친구가 초대전을 여는데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게 됐다. 일반적인 조건과 동떨어진 계약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 맘에 걸렸다. “친구가 마음 편하게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

정한울 작가도 어렸을 때 청각 장애를 앓았기에 누구보다 장애 예술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물론 지금은 수술을 통해 말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는 “귀가 잘 안 들리던 시간이 많다 보니 장애인 예술가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무엇보다 예술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언급한대로 전시장에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김태균 청각장애 작家的 ‘돌고래의 꿈’은 환상적이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석양이 물드



김태균 작 '돌고래의 꿈'

는 시간, 머나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두 남녀의 머리 위로 노을빛 고래들이 하늘을 유영하고 있다. 남녀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나는 돌고래의 모습인지 그 너머의 이상향에 대한 기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한울 작家的 ‘홍매화’는 한겨울 삭풍을 견디고 피어난 매화의 화사한 꽃망울이 인상적이다. 작품은 시기는 다들지언정 꽃은 언제나 핀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는 듯하다.

김미란 작家的 ‘landscape’는 성하의 계절 수목이 우거진 계곡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계곡물이 차오른 웅덩이는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어 보는 이에게 청량감을 선사하며, ‘봄소식’이 주는 화사함은 사소한 근심까지도 털어내게 한다.

이밖에 류재웅 작家的 ‘산수유’, 최명영 작家的 ‘행복 나누기’ 등 저마다 작품세계를 열어온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국제다르기문화예술교류협회 회원인 화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 비장애 작가들의 미술작품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작품, 시각장애인들의 사진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의 장을 펼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다르기'가 24일까지 조선타 미술관에서 '2023 다르기-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을 열고 있다.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만나요

## 친환경·폐기물 최소화 방안 모색 사회적 가치실천 취약계층 무료 계획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친환경, 사회적 가치 등 지속가능한 전시를 표방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재사용 등 친환경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 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을 함의한다.

디자인진흥원은 그 일환으로 전시 공사의 친환경, 폐기물 최소화, 플라스틱 소재 사용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관은 기존 목재 가벽 및 석고보드 사용을 50% 가량 줄이고 친환경 헨리폼보드, 나무팔레트, 목재 하우스 모듈 등으로 대체해 폐기물을 최소화했다.

디자인비엔날레 측은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을 테마로 한 전시콘텐츠도 선보인다. 비즈니스관에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Design Award(디자인어워드)와 함께 인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오프-그리드 솔루션’.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IF의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분야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위생·건강 관리를 습관화하기 위한 적응형 게임 ‘축구를 통한 보건의료’(우간다의 와토토와 소카), 평화와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미디어 ‘Peace Pekee’(케냐의 슈자츠 잉크) 등 아프리카의 참여가 눈에 띈다. 또한 도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분류 프로그램(아르헨티나), 지속가능한 물 이용 프로젝트(미국), 소외지역의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독일), 인공 손가락 ‘Lunet’(미국 휴스턴대) 등 12개국 디자이너와 기업들의 20여 점의 디자인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관 ‘나의 친환경’ 존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세컨드라이프 의자를 선

보이며 나타샤의 나무발굽, 디자인 뮤의 미생물 음식처리기 ‘파이널피진’ 등 제품디자인도 볼 수 있다.

이밖에 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지역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의 관람 및 취약계층,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 관람도 계획하고 있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국제 전시는 폐막 이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막대한 전시폐기물이 발생한다”며 “올해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친환경, 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빛마루문예회관 개관 ‘사랑은 아름다워’

서울 극단 ‘집현’ 초청, 24~25일 서빛마루문예회관

광주 서빛마루문예회관 개관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서울 초청공연이 광주에서 마련된다. 극단 ‘집현’은 뮤지컬 ‘사랑은 아름다워’를 오는 24~25일(오후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연다. 작품은 생명과 가족 그리고 사랑의 진의를 음악극 형식으로 표현한 것.

세계 최저출산율로 고통받는 작중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위기에 처해있는 모습은 현실 속 한반도의 모습과 ‘삼신할머니’는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한다.

한편 ‘고령화’ 원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돈벌이를 위한 낙태전문병원이다. 삼신할머니의 책사는 임신부로 변신해 8개월 된 미숙아를 낳고 사라진다.

아이들 보면서 사랑을 느낀 고령화 원장은 비윤리적 낙태행위를 중단하면서 참된 가족과 인류애를 발견해 가는 이야기.

예술감독은 양미정 음악감독은 신영길이 맡았다. 이어 배우 이상희, 최경희, 김은채, 이호



극단 ‘집현’의 공연 장면. <서빛마루문예회관 홈페이지>

정 및 신동환, 이도경, 임나경, 손은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전석 2만원. 티켓링크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헨젤과 그레텔’ 결말은 관객이 안다

더싱어즈, 인터랙티브 오페라 공연...25일 광산문예회관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미러: 밴더스네치’는 인터랙티브 영화를 표방한다. 여러 선택지에 놓인 주인공의 다음 행동을 시청자가 결정하는 방식은 ‘00 쪽으로 가시오’와 같은 추억의 게임 북을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관객이 직접 극의 전개를 결정하는 인터랙티브 오페라가 펼쳐진다. 더싱어즈(대표 이한나)가 오는 25일(오후 7시 30분) 광산문예회관에서 여는 ‘헨젤과 그레텔’ <사진>이 바로 그것. 관객 참여형 진행으로 극의 결말을 결정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번 작품은 잘 알려진 독일 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을 오페라화한 ‘창작동화 오페라’다. 원작의 내용에 요정들과 착한마녀, 나쁜마녀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추가해 관객들의 기대를 끈다.

이한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각색에 유영민, 헨젤(권효진, 김숙영), 그레텔(김지영, 윤혜정)이 맡는다. 또 나쁜 마녀(박하영), 착한 마녀(노선진, 정수연)가 출연한다. 잠의요정(정혜진)과 이슬요정(박수연) 등도 무대에 오른다.



한편 공연은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광산문예회관 상주단체인 더싱어즈가 선보이는 패밀리예술극장 시리즈의 일환으로 펼쳐지며 24일까지 예매 가능.

전석 5천원. 광산문예회관 누리집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배신의 기록...청산해야 할 역사 ‘밀정’

극단 여명1919 ‘밀정리스트’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청산해야 할 역사인 밀정을 소재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여명1919는 ‘밀정리스트’ <사진>를 오는 25일(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무대는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추진하는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으로 마련됐다.

의를 나는 동지가 밀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의열단원을 소재로 한다. 작품은 한때 동지였던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와 맞물린 인간적 고뇌에 초점을 맞췄다. KBS에서 방영 됐던 시사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존의 영상자료를 연극의 기법으로 녹여내, 극적

재미와 사유의 확장을 꾀했다.

역사전문 극단인 ‘여명 1919’는 ‘연극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모토로 지난 2022년 창단됐다. 이들은 역사를 소재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빛 ‘여명’을 비추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3개 작품을 신청, 위탁금과 국비사업 매칭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여명 1919 ‘밀정리스트’에 이어 9월 8일 문민기획의 ‘우리들의 사랑’, 10월 26일 주식회사 브이라이트의 ‘달콤한 음악스토리 With Classic’ 등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소의계층 30%를 무료 초청하며 8세 이상 관람, 입장료 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